

| 글. 이화자_ Lee, Hwa-ja

여행작가 겸 여행테라피스트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예레반!

Yerevan, The beauty of Armenian Gold

여행갈 때가 되면 내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나의 이야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 불필요한 물건들을 총동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난 다시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있는 아르메니아. 이들도 생소한 나라로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알면 알수록 깊고 슬프며, 지난한 역사 속에 인두처럼 새겨진 아름다운 건축물들은 80개국을 여행한 내게도 손꼽힐 만큼 특별한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 원고청탁을 받고 어떤 나라를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아르메니아가 떠오른 이유는 따로 있다. 여행 중에 난 종종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여행기를 올리곤 하는데, 건축사인 한 페친(‘페이스북 친구’를 줄인 말)이 내가 올린 건축물과 십자가상에 참여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국과 아르메니아 사이에서 그곳의 건축과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나눴고, 그것이 나의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했다.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Caucasus) 3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중에서도 경제 발전이 가장 느린 나라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로, 예수를 찌른 창을 소장하고 있는 나라이자 노아의 방주 전설이 깃든 아라랏산이 있는 나라이며, 수도 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들의 정착지 중 하나다. 20개 이상의 박물관과 아르메니안 골드 사암으로 만든 정교한 건축물, 현대적 아름다움의 결정체라 불리는 건축물 캐스케이드(Cascade)가 어우러져 있어 규모는 작아도 도시 자체가 아름답고도 고색창연한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소비에트 시절 레닌 동상이 있어서 한때 레닌광장이라 불렀던 공화국 광장은 전체적으로 타원 모양인데, 불그스름한 금빛이 나는 건물들은 하늘에서 아르메니아 전통 러그가 내려온 듯한 느낌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예레반의 중요한 건물과 교회는 아르메니안 골드라는 사암으로 만들어져서 도시 전체가 통일된 느낌을 준다. 사암은 따로 페인트칠을 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도 조도와 조명에 따라 다른 컬러를 띠며, 세밀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새기기에 아주 좋아서 예레반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주는 일등공신 같았다. 이웃나라 조지아(그루지아)가 세계 최초의 와인생산지로 유명하다면 아르메니아는 브랜드(교낙)로 유명한데, 아라랏트 브랜드 회사의 건물 또한 사암으로 만들어져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벽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마치 레이스를 뜯 것처럼 섬세하다는 ‘아르메니안 돌십자가(Crossing Stone)’를 탄생시키는 배경이었을 것이다.



전 세계 80여 국가를 여행했으며, 저서로 ‘우리는 왜 여행을 하는가에 대한 아포리즘을 담은 〈여행에 미치다〉와 개인의 심리적 상황에 맞는 여행지를 추천하는 〈여행처방전〉이 있다. 여행이 이 세상에 살며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1937년 건축 디자인 대상을 받았다는 오페라하우스도 무척 아름다웠지만 예레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바로 캐스케이드 콤플렉스(Cascade Complex)였다. 론리플래닛(국가별 여행안내서적)에 캐스케이드라고 나와 있어서 지리학적으로 독특한 지형이

있는지 궁금했던 곳은, 알고 보니 소비에트연방 가입 5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계단식 현대 건축물로, 1991년 독립하면서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01년 카페스티안(Gerald L Cafesjian)에 의해 완성된 거대한 문화공간이자 전망대다. 꼭대기에서는 예레반 시내를 조망할 수 있으며, 2차대전 참전 기념탑과 아르메니아의 어머니(Mother Armenia) 동상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아르메니아 돌십자가



캐스케이드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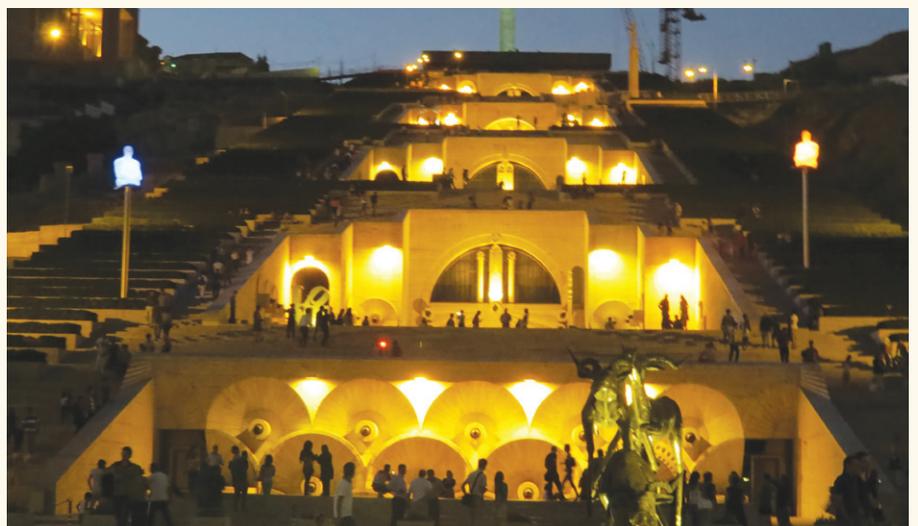


캐스케이드의 낮

캐스케이드는 무척이나 근사하지만 낮 동안 내리 쬐는 직사광선과 더위로 도저히 걸어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런 여행자의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계단 좌측에는 카페스티안센터가 있다. 이곳을 통하면 에스컬레이터로 편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층마다 외부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 굳이 힘들이지 않고도 각층별 전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센터 내부도 외부처럼 각층마다 독특한 아트웍(artwork)을 전시해놓고 있으며, 공연장과 갤러리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아르메니아 문화의 핵심이라 하겠다.

기세등등하던 태양도 기가 죽을 무렵이 되니, 캐스케이드 전체에 일제히 조명이 들어온다. 사람들은 시원함을 찾아 모여들고 밤의 캐스케이드는 낮과는 또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준다. 센터 앞에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가 즐비하고 바로 앞 공원에는 캐스케이드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카페스티안의 컬렉션인 보테로(Fernando Botero Angulo)의 조각들도 전시되어 있어 휴식의 즐거움을 더한다.

내가 여행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바로 이럴 때다. 눈앞에 명소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순간의 바람과 공기를 접선하는 순간들 말이다. 낯가엔 이국의 언어들이 춤을 추고 난 진실로 “이 세상에 살면서 딴 세상을 경험하는 황홀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다. ㄷ



캐스케이드의 밤